

# 팔체질의학론의 원리에 대한 고찰

이봉희 · 권강범 · 박 철 · 조창래 · 류도곤\*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tudy on Principle of the Theory of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Bong Hee Lee, Kang Beom Kwon, Cheol Park, Chang Rae Jo, Do Gon Ryu\*

*Department of Physiolog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 have researched the process of visceral structure in the Eight Constitutionals under circulation of the five elements and the formation of primary source of illness. From this research, I could draw following conclusions through combination of the auxiliary psycho-formulas by applying the constitutional acupuncture therapy on the five elements diagnostic calculation. Since the arrangement for the five dimensions of organs in the eight constitutions has been formulated by circulation of the five elements in Sasang constitutions, if the five elements begin circulating count-clockwise from the reference point at the organs in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the positive constitutional arrangement of organs is built up such as, the positive constitution of metal, earth, wood and water, while begin circulating clockwise, the negative constitutional arrangement of organs is formulated, such as the negative constitutions of metal, earth, wood and water. The source of illness results from imbalance of the organic force being generated by transfer of the five elements from compatibility to incompatibility when the five elements circulate. Hence, it has been acknowledged that if the source of illness comes from the strongest organ, it is the time when circulation of the five elements progresses from the second organ (the second strongest) in incompatibility, and if the source of illness comes from the weakest organ, it is the time when circulation of the five elements progresses from the third organ (the middle) in incompatibility. It is considered proper to diagnose meridians of the pericardium and the Triple Burners rather than to diagnose meridians of the heart and the small intestine which forms the visceral arrangement of the eight constitutions. For instance, the auxiliary psycho-formula obtains its prescription by attenuating the first organ (the strongest) while augmenting the fourth organ (the second weakest) when the axis of incompatibility in the five elements circulation crosses the second and the third organs, and it gets its prescription by attenuating the second organ(the second strongest) while augmenting the fifth organ(the weakest) when the axis of incompatibility in the five elements circulation crosses the third and the fourth organs. In addition, when medicating, the 4~5 times of repeated performance can be assumed to represent the amount of an energy that each organ bears depending on the phase in the arrangement of the eight constitutional organs.

Key words : eight constitutional medicine, five elements, the source of illness, the auxiliary psycho formula

### 서 론

인간은 타고난 외모와 체격 및 성품이 제각기 다르며 이러한 고유의 특성은 자연·사회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에서 차이와 동일한 발병요소에 대해서도 다른 감수성을 보이며, 질병발생과 그에 따른 병태생리에서도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sup>1)</sup>고 한다. 이러

한 개체 고유의 특성을 체질(體質 constitution)<sup>1)2)</sup>이라 하며, 이는 선천적인稟賦와 후천적인 환경 요인에 의하여 형성된 개개인이지니는 형태적, 기능적, 정신적인 특성을 말하며, 이러한 특성은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며 환경요소에 의해 단기간에 변화하지 않는다<sup>1)2)3)</sup>고 알려져 있다. 체질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 교신저자 : 류도곤,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 E-mail : tkry@wonkwang.ac.kr, · Tel : 063-850-6846

· 접수 : 2009/07/13 · 수정 : 2009/07/25 · 채택 : 2009/08/10

1) 진국한의원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집문당출판사, 서울, 2008, pp. 489-490.

2) 최승훈, 黃帝內經의 體質論, 사상의학회지 10권 2호, 1998, pp. 15-28.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인체의 각 부위를 따로따로 조사해서는 판명되지 않는 개체의 종합적인 형질로 신체의 형태나 기능에 대해 태어나면서부터 갖추고 있는 전체론적인 성상이다.<sup>4)</sup>

한국에서는 조선 말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sup>5)</sup>에서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연원으로 하여 성립된 실천적 체질의학이 등장하였다. 이후 현대에 이르러 권도원<sup>6)</sup>은 인간의 체질유형을 8가지로 나눈 8체질의학을 보고 하였다.

최근 이러한 8체질의학과 관련된 연구로 김 등<sup>8)</sup>은 8체질의학에 대하여 이론이 명백히 임상적 효과를 얻고 있으며,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하여 실증성과 일반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또한 주<sup>9)</sup>는 인간을 최초로 장부대소 관계로 파악한 이제마의 사상의학을 종합하여 우리민족 고유의 치밀한 8체질의학을 탄생시켰다고 하였다고 하였다. 그리고 사상의학과 관련시켜 배<sup>10)</sup> 등은 맥진에 대한 보고를 하였고, 이<sup>11)</sup> 등은 8체질의학에서 목, 토, 금, 수 4체질군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를 하였으며, 정<sup>12)</sup> 등의 8체질침의 혈위 구성에 대한 보고를 접할 수 있었다.

이에 저자는 8체질을 구성하는 다섯 장부의 대소배열의 원리와 각 체질의 病根<sup>13)</sup>이 생기는 기전을 오행의 상생상극의 운행에 따라 고찰하고 또한 8체질침 치료의 기본이 되는 단위처방을 오행검산법으로 검토하여 단위처방 중에 정신부방을 구하는 방법을 고찰한 바를 보고하고자 한다.

## 본 론

### 1. 8체질의 장기기능관계에 대한 이해

동의수세보원에서 심(화)는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것을 주재하는 태극과 같다고 하여, 심이 제외된 간, 비, 폐, 신의 네 장기를 오행의 상극의 관계로 두 장기씩 결합하여 네 가지 유형 즉, 간대폐소한 태음인, 비대신소한 소양인, 폐대간소한 태양인, 신대비소한 소음인으로 나누었다<sup>14)</sup>. 사상인은 두 개의 장부의 대소만을 구분하여 나누었으나, 8체질의학에서는 체질을 오장과 함께 오부도 대소로 나누어, 다섯 개의 장부를 기능 대소의 배열에

따라 8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8체질의 분류의 근간이 되는, 다섯 장부를 기능의 대소에 따라 배열하는 원리와 각 체질의 병근이 되는 장기의 성립방식과 처방 구성 원리 및 정신부방에 대해서 고찰해보았다.

#### 1) 권의 8체질의 장기기능관계<sup>15)</sup>에 대한 이해

권은 사상인을 장기질과 부기질로 나누어 8가지 유형을 만들었으며, 이는 후일 8체질이 되었고, 8체질은 5개의 장기를 기능상 대소의 배열로 나눈 것이다(표 1). 이는 권의 “체질침”<sup>16)</sup>은 문에 처음 발표되었으나, 김<sup>17)</sup> 등의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목양, 수양체질은 2~3번째 장기가, 목음, 수음체질은 3~4번째의 장기가 순서가 변경되어 발표된 후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표 1. 권의 8체질의 장부기능관계

체질구분	장부 배열
금양체질	폐>혜>심>신>간
금음체질	대장>방광>위>소장>담
토양체질	혜>심>간>폐>신
토음체질	위>대장>소장>담>방광
목양체질	간>신>심>혜>폐
목음체질	담>소장>위>방광>대장
수양체질	신>폐>간>심>혜
수음체질	방광>담>소장>대장>위

#### 2) 주의 8체질의 장기기능관계<sup>18)</sup>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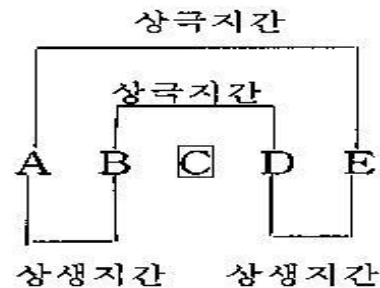


그림 1. 8체질의 장부 대소배열의 조건

이는 ‘8체질의학의 원리’에서 소개된 방법으로, 위의 조건에 부합되는 오행의 구조식은 수학적으로  $5 \times 4 = 20$ , 즉 20가지가 존재한다. 이를 모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오장, 오부 기능대소의 오행 배열이 다음과 같을 때 A> B> C> D> E>

#### (1) A에 목이 오는 경우

목>화>토>수>금

목>화>수>금>토

목>수>금>화>토

목>수>화>토>금

#### (2) A에 화가 오는 경우

15) 권도원, 前揭論文, 1965, pp.153-156

16) 권도원, 上揭論文, 1965, p.154

17) 김숙희 외, 4,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8권2호, 1985, p.158

18) 주석원, 前揭書, 2007, pp.114-118

3) 박찬국, 『臟象學』, 成輔社, 서울, 1992, pp. 285-323.

4) 야후 백과사전, 과학기술편, 출력일, 2009.3.24

<http://kr.diccionario.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p?subtype=enc&pk=18665500&field=id&p=%EC%B2%B4%EC%A7%88>

5)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1992, p. 28.

6) 권도원, 체질침, 국제침구학회지, 동경, 1965, pp. 149-167.

7) 권도원, 체질침 치료에 관한 연구, 명지대논문집 제7집, 1974, p. 608.

8) 김숙희 외,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8권 2호, 1985, pp. 155-166.

9) 주석원, 8체질의학의 원리, 서울, 통나무, 2007, pp. 60-63.

10) 배문용 외 1인, 사상체질의 감별법과 병리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제7권 제1호 1998, p.487

11) 이상범 외 3인, 8체질의학에서 목, 토, 금, 수 4체질군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6권 3호, 2005, pp. 80-97

12) 정상지 외 2인, 8체질침의 혈위구성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권 6호, 2008, pp. 1397-1402.

13) 권도원, 前揭논문. 동경, 국제침구학회지, 1965, pp. 154-155 ‘병근’은 각 체질에서 유발되는 질병의 근본과 원인으로 장기로 표시된다. 논문에는 disease-origin으로 표기. ‘병증’은 각 체질이 적당한 불균형이 깨져 병적인 상태가 된 것을 말한다. 논문에서는 morbidity로 표기.

14) 이제마, 前揭書, 1992, p. 29

화>목>토>금>수  
 화>목>수>토>금  
 화>토>금>목>수  
 화>토>목>수>금

(3) A에 토가 오는 경우

토>화>금>수>목  
 토>화>목>금>수  
 토>금>화>목>수  
 토>금>수>화>목

(4) A에 금이 오는 경우

금>수>토>화>목  
 금>수>목>토>화  
 금>토>수>목>화  
 금>토>화>수>목

(5) A에 수가 오는 경우

수>금>토>목>화  
 수>금>목>화>토  
 수>목>화>금>토  
 수>목>금>토>화

위의 20가지 중에 양쪽 끝에 목, 금 그리고 토, 수가 오는 경우만 뽑으면 권의 8체질의 구조식이 된다. 이는 다음과 같이 8개가 된다.

- ① 금>토>화>수>목 (금양)    ② 금>수>토>화>목 (금음)
- ③ 토>화>목>금>수 (토양)    ④ 토>금>화>목>수 (토음)
- ⑤ 목>수>화>토>금 (목양)    ⑥ 목>화>토>수>금 (목음)
- ⑦ 수>금>목>화>토 (수양)    ⑧ 수>목>화>금>토 (수음)

3) 박의 8체질의 장기기능관계<sup>19)</sup>에 대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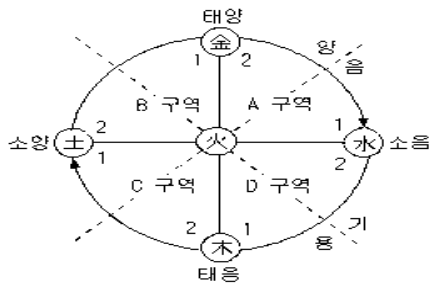


그림 2. 사상의 대응에 따른 속성의 예

火중심의 오행에서 금(태양)-목(태음), 토(소양)-수(소음)를 대칭적으로 놓고, 네 체질을 장기의 대소 관계로 오행으로 표시하면 태양= 금>목, 소양=토>수, 태음 =목>금, 소음=수>토가 된다.

[태양]=[금>>목]오행  
 [소양]=[토>>수]오행  
 [태음]=[목>>금]오행  
 [소음]=[수>>토]오행

화기가 일어나는 오행에서는 힘이 강한 것들끼리는 떨어져 다른 구역에 존재해야 하므로

(1) [태양]=[금>>목]오행의 강한 금은 火가 약한 때문이고, 북쪽에서 기를 받아 水가 강하여 [태양]=[금>수 or 토>화>목]오행이 되며, 음양이 나누어지는 8체질에서 수와 토의 순서로는

[태양]1=[금>수>토>화>목]오행  
 [태양]2=[금>토>수>화>목]오행

(2) [소양]=[토>>수]오행의 강한 토는 목이 약한 때문이고, 이로 인한 약한 수로 화가 보장되므로 [소양]=[토>화>금 or 목>수]오행이 되며, 음양이 나누어지는 8체질에서 금과 목의 순서로는

[소양]1=[토>화>금>목>수]오행  
 [소양]2=[토>화>목>금>수]오행

(3) [태음]=[목>>금]오행의 약한 금은 화가 강한 때문에 수가 더 약한 것으로 [태음]=[목>화>토 or 수>금]오행이 되며, 음양이 나누어지는 8체질에서 토와 수의 순서로는

[태음]1=[목>화>토>수>금]오행  
 [태음]2=[목>화>수>토>금]오행

(4) [소음]=[수>>토]오행의 약한 토는 목이 강하기 때문에 [소음]=[수>목> or 금>화>토]오행이 되며, 음양이 나누어지는 8체질에서 목과 금의 순서로는

[소음]1=[수>목>금>화>토]오행  
 [소음]2=[수>금>목>화>토]오행이 된다.

기본 오행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상이 생성되기 전, 음양의 1차 변환인 內氣가 양인 태양인과 소음인은 화의 기운이 약하고, 內氣가 음인 태음인과 소양인은 火의 기운이 강하다는 사실이다<sup>20)</sup>.

여기서 4체질을 1, 2로 나누면 8유형으로 되며 각 유형에 따라 五臟, 五腑를 오행의 크기순서로 배열하면 8유형의 장부 오행 배열구조가 성립한다.

강한 장기의 오행을 선두에, 약한 장기의 오행을 후미에 두고, 內氣<sup>21)</sup>가 양인 태양인, 소음인에게서 화가 약한 요소이므로 최약 장기의 앞에 둔다. 內氣가 음인 소양인과 태음인은 火가 강하므로 최강 장기의 다음에 둔다. 두 번째(태양인, 소음인의 경우) 또는 세 번째(소양인, 태음인)의 장기 오행의 배열은 위의 그림 2에서 인접한 체질의 오행을 두되, 각 체질 1형은 (시계방향의 위치) 2형 쪽에 있는 장기의 오행을 먼저 두고 다음번에는 (반시계방향) 1형 쪽의 오행을 둔다. 체질2형은 (반시계방향) 1형 쪽에 있는 체질의 오행을 두고 다음번은 (시계방향) 2형 쪽의 오행을 둔다. 여기서 화의 자리는 최강 장기 다음에 오거나 최약 장기의 바로 앞에 오는 두 가지의 경우가 있고 화의 위치는 같은 사상체질의 1, 2 형에서 동일한 위치이다.

예를 들면, 태양인의 경우에 장기의 오행은 金大 木小, 즉, 금>목이고, 태양인은 내기가 양으로 화가 약하므로 화의 위치는 최약 장기 목의 앞이며, 최강 장기 다음 장기의 오행은 그림 2에서 1형은 (시계방향) 2형 쪽으로 가까운 체질은 소음인인 수이고, 2형은 (반시계방향) 1형 쪽으로 소양인인 토이다. 셋째 장기의 오

20) 박용규, 上揭書, 2006, pp.94~96

21) 음양에서 나온 사상은 태양(==)은 아래 양 위에 양으로, 소양(==)은 아래 음 위에 양으로, 소음(==)은 아래양 위에 음으로, 태음(==)은 아래 음, 위에 음으로 궤가 조합된다. 여기서 아래(내기)가 양인 태양, 소음은 발산의 성질로 양이 약하며 아래가 음인 태음 소양은 수렴의 성질을 가지며 양이 강하다.

19) 박용규, 입체음양오행, 서울, 태웅출판사, 2006, p181-188

행은 다섯 개 중에 나머지를 채운다.

- 태양인1형=[금> 수> 토 >화 >목]
- 태양인2형=[금> 토> 수> 화> 목]
- 소양인1형=[토> 화> 금> 목> 수]
- 소양인2형=[토> 화> 목> 금> 수]
- 태음인1형=[목> 화> 토> 수> 금]
- 태음인2형=[목> 화> 수> 토> 금]
- 소음인1형=[수> 목> 금> 화> 토]
- 소음인2형=[수> 금> 목> 화> 토]

표 2. 권의 8체질과 명칭비교

박의 8체질 명칭	권의 8체질 명칭
태양인1형	금음체질
태양인2형	금양체질
소양인1형	토음체질
소양인2형	토양체질
태음인1형	목음체질
태음인2형	목양체질
소음인1형	수음체질
소음인2형	수양체질

사상체질의 1형은 음체질, 2형은 양체질이다

위의 8가지 조합에서 8체질의 장기대소배열과 같은 것은 태양1형(금음체질), 소양2형(토양체질), 태음1형(목음체질), 소음2형(수양체질), 4가지이다. 여기서 4체질, 태양2형(금양체질), 소양1형(토음체질), 태음2형(목양체질), 소음1형(수음체질)은 8체질의 조합과 일치하지 않으며 화의 위치만 다르다. 박의 8체질 구조의 조합에서 화의 위치를 사상체질에서 동일하게 최강 장기 다음, 두 번째에 두거나 최약 장기의 앞에, 네 번째에 둬므로서 4개의 체질은 권의 8체질의 장기배열구조와 같고 4체질은 다음을 알 수 있다.

4) 저자의 8체질의 장기기능관계에 대한 이해

사상체질이나 8체질은 인간의 유형을 나누는 하나의 틀이다. 五行의 五는 木, 火, 土, 金, 水의 다섯 양태를 이야기하며 行은 氣之流行의 行으로<sup>22)</sup> 우주와 만물을 형성하는 내부적인 구조인 동시에 우주와 만물의 운동과 변화의 기본수단이다<sup>23)</sup>. 사상의 틀<sup>24)</sup>에서 오행이 운행할 때 8개의 각각 다른 오행의 배열이 생기며 이것이 8체질의 장기구조가 된다. 즉 오행 속에서 사상을 기점으로, 즉 간대폐소한 태음인에 있어서 肝大한 목에서 시작하고, 비대신소한 소양인은 토에서, 폐대간소한 태양인은 금에서 신대비소한 소음인은 수에서 상생상극의 운행이 시작됨을 말한다. 동의수세보원에서 인간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눈 네 장기인, 간(목), 폐(금), 비(토), 신(수)의 사상은 평면적인 구조로 움직임이 없고 고정되어 있는 평면적 개념이다.

이는 사상의학에서 약물치료의 이론적 바탕이 된다. 인체는 살아서 움직이는 유기체이다. 오장의 기운은 시시때때 변화면서 경락을 통하여 인체를 조절한다. 이것은 8체질의학의 기본이론이 되며, 이로서 8체질의학은 체질침이 치료의 주가 된다.

사상의 네 가지 요소에 火가 들어가 오행이 되면 움직임이 일어나는 데, 움직임은 상생상극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서 화(心)는 사상에 힘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되며 운행의 한 요소로 작용하나 체질구성요소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 이것은 이제마가 동의수세보원에서 심은 중앙태극이므로 사상의 네 개의 장에서 배제시킨 때문이다.

8체질의학에서 오장오부는 오행을 통하여 움직임이 생길 때, 오행의 운행은 최강 장기에서 상생(반 시계방향=좌측으로, 시계방향=우측으로)으로 운행을 시작하여 최약 장기의 앞 장기에서, 최 약 장기에서 먼 쪽, 최강 장기의 다음 장기로 상극으로 진행한 후, 최약 장기 방향으로 상생으로 운행하게 된다.

양체질인 금양, 토양, 목양, 수양체질은 최강 장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반 시계 방향으로 운행하다 최 약 장기의 앞 장기에서 상극 방향으로, 최강 장기의 다음 장기로(시계방향에 있는 장기)가서, 최약 장기를 향하여 상생으로 진행한다. 음체질인 금음, 토음, 목음, 수음체질은 최강 장기를 기점으로 시작하여, 시계방향으로 운행하다 최약 장기의 앞에서 상극방향으로, 최강 장기 다음 장기로(반시계방향에 있는 장기)가서, 최약 장기를 향해 상생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양체질은 오행운행을 반시계 방향으로 하였을 때 나타나는 배열순서가 각 체질의 장기대소 배열이 되고, 음체질은 오행운행을 시계방향으로 하여 나타나는 배열순서가 각 체질의 장기대소의 배열이 된다. 이와 같은 오행운행으로 8체질의 장기대소의 구조가 만들어진다.

(1) 간대폐소 : 태음인체질군

목양체질(반시계방향) : 목> 수> 화<sup>25)</sup>> 토> 금

목음체질(시계방향) : 목> 화> 토> 수>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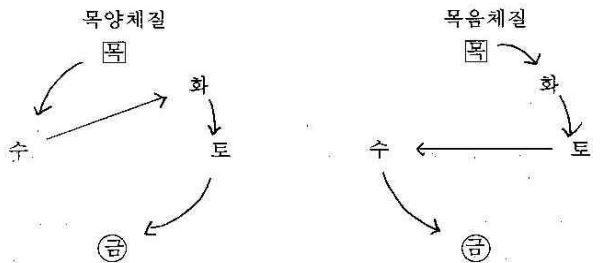


그림 3 목양, 목음체질의 오행순행

(2) 비대신소 : 소양인체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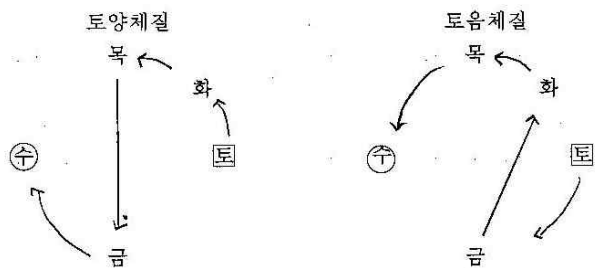


그림 4 토양, 토음체질의 오행순행

25) 밑줄 친 부분은 상극으로 진행하는 장기를 나타내며, 나머지 장기들은 상생으로 배열되어 있다.

22) 김용욱, 기철학산초, 서울, 통나무, 2000, p.40  
 23) 노병환, 음양오행사유체계론, 서울, 안암문화사, 2005, p.122  
 24) 오행의 운행을 사상(간:목, 비:토, 폐:금, 신:수)을 기준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태양계열(금양,금음체질)은 폐금에서 운행이 시작되는 것을 말한다.

토양체질(반시계방향) : 토> 화> 목> 금> 수

토음체질(시계방향) : 토> 금> 화> 목> 수

(3) 간대폐소 : 태양인체질군

금양체질(반시계방향) : 금> 토> 화> 수> 목

금음체질(시계방향) : 금> 수> 토> 화> 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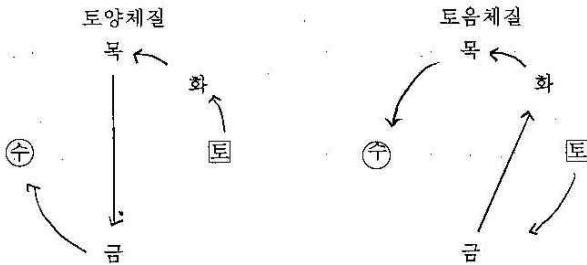


그림 5. 금양. 금음체질의 오행순행

(4) 신대비소 : 소음인체질군

수양체질(반시계방향) : 수> 금> 목> 화> 토

수음체질(시계방향) : 수> 목> 화> 금> 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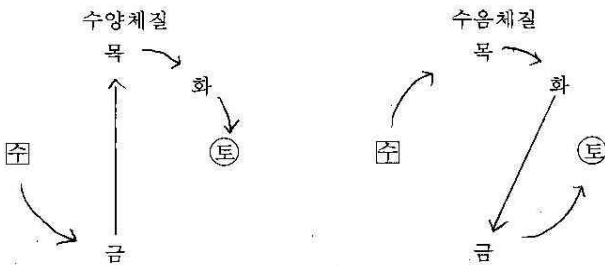


그림 6. 수양. 수음체질의 오행순행

2. 8체질의 병근

병근이란 각 체질에 질병이 발생하는 근본 원인을 말한다.<sup>26)</sup> 8체질의 구조식 도해 그림 3, 4, 5, 6에서 가장 강한 장기를 기점으로 반 시계방향과 시계방향으로 회전할 때, 가장 약한 장기의 앞 장기에서 상극방향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때, 2번째 장기에서 상극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4개의 체질, 즉 금음체질, 토음체질, 목양체질, 수양체질은 강한 장기가 병근이 되는 체질이며, 3번째의 장기에서 상극의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4개의 체질, 즉 금양체질, 토양체질, 목음체질, 수음체질은 가장 약한 장기가 병근이 되는 체질이다.

1) 가장 강한 장기가 병근이 되는 경우

2번째의 장기에서 상극방향으로 진행한다.

다섯 개 장기를 크기순서로 배열한 A> B> C> D> E의 체질의 구조식에서 (5> 4> 3> 2> 1 : 힘의 세기를 가정) C의 좌측의 A, B는 강한 장기이며, 우측 D, E는 약한 장기이다. 이때 C를 중심점으로 좌우로 적당한 불균형상태가 유지되는데 이것은 건강한 상태이다. 인체는 끊임없이 장부의 기가 운행되면서 생명활동을 유지한다. 오행의 틀 속에서 최강 장기에서 시작된 상생의 운행은 최약 장기 전 장기에서 상극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때

2번째 장기에서 상극으로 운행할 때는 2번째 장기, B와 중심인 3번째 장기, C의 세기가 합쳐서 강한 장기 쪽의 힘은 더욱 커지게 되어 중심 장기 C로부터 좌우의 균형이 심하게 깨지며 강한 장기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이때 최강 장기가 문제가 되며 이것이 병근이 된다. 그러나 질병의 상태는 아니며 체질적인 특성이 된다.

예) 금음체질 : 폐> 신> 비> 심> 간

5, 4, 3, 2, 1

5, 4+3 / 2, 1 -- 힘의 틀이 형성

5, 7 / 2, 1

(위의 숫자는 오행검산법<sup>27)</sup>의 기본이 된다.)

금음체질(시계방향) : 폐> 신> 비> 심> 간

토음체질(시계방향) : 비> 폐> 심> 간> 신

목양체질(반시계방향) : 간> 신> 심> 비> 폐

수양체질(반시계방향) : 신> 폐> 간> 심> 비

2) 가장 약한 장기가 병근이 되는 경우

3번째 장기에서 상극방향으로 진행한다

오행의 틀 속에서 최강 장기에서 시작된 상생의 운행은 최약 장기 전 장기에서 상극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이때 3번째 장기에서 상극으로 진행할 때는 중심 장기인 3번째 장기, C가 4번째 장기, D쪽으로 가면서 중심장기의 크기 3만큼 약한 장기에서 힘을 빼는 작용하여(중심축을 우측으로 넘어가면서 힘은 마이너스로 작용한다) 약한 장기 쪽은 더욱 약해지게 된다. 그러므로 C를 중심으로 좌측에 있는 강한 장기의 세기와 우측에 있는 약한 장기와의 세기가 더욱 심하게 불균형을 이루게 된다. 이때는 최약 장기가 문제가 되며 이것이 병근이 된다. 그러나 질병의 상태는 아니며 체질적인 특성이 된다.

예) 금양체질 : 폐> 비> 심> 신> 간

5, 4, 3, 2, 1

5, 4 / -3, 2, 1 -- 힘의 틀이 형성

5, 4 / 0

금양체질(반시계방향) : 폐> 비> 심> 신> 간

토양체질(반시계방향) : 비> 심> 간> 폐> 신

목음체질(시계방향) : 간> 심> 비> 신> 폐

수음체질(시계방향) : 신> 간> 심> 폐> 비

3. 처방의 원리

1) 단위처방 구성 원리

기본방, 부계염증방, 장계염증부방, 정신부방, 활력부방, 살균부방, 퇴행부방으로 나누어지며, 이는 주로 하나 내지 두 개의 장부가 과한 불균형상태에서 질병을 일으켰을 때 사용하며, 과한 불균형에 이른 장부가 많을수록 중한 질병에 속하며 이 단위처방의 조합한 복합처방을 사용하게 된다.

8체질의 장부 구조식 : A> B> C> D> E 에서 A, B는 강해지려고 하며, D, E는 약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이는 위 구조식의

27) 저자가 8체질처방을 수리적으로 검사하는 법으로 설정한 것이다. 가장 강한 장기를 瀉할 때는 -5, 다음 강한 장기를 瀉할 때는 -4로 계산하고, 가장 약한 장기를 補할 때는 +5로, 다음으로 약한 장기를 補할 때는 +4로 계산한다.

26) 권도원, 상계논문, 1965, pp.153~155

a> b> c> d>e 는 오행구조식이다.<sup>28)</sup>

(1) 최강 장기가 병근인 체질의 단위처방 : A> B> C> D> E  
5 4 /3 2 1

금음체질, 토음체질, 목양체질, 수양체질

A가 병근이 되므로 A를 사하는 처방을 사용하게 된다. 이것이 기본방이 되며 해당체질의 기본치료가 된다. A를 사하는 방법은 상생의 장기인 B를 사하고, 상극 장기인 가장 약한 장기인 E를 보하는 데, 그러면 C를 축으로 하는 힘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즉, B장의 오행b를 사하고, E장의 오행e를 보하며, A장의 오행 a를 사하고 e를 보하는 것을 말한다. 오행검산법에서 瀉A는 -5, 瀉B는 -4로 계산하고 補E는 +5, 補D는 +4로 계산하여 회전축을 기준으로 좌우측을 각각 합산한다. 이때 회전축의 좌우 크기는 같아야하며 다를 때는 처방구성이 잘못된 것이다.

예) 금음체질의 처방<sup>29)</sup>

- 기본방 : 사A=사B보E : 5+4+3-4/+5+2+1= 5+3/5+2+1=8/8  
B(b-), A(b-), E(+), A(+), 음곡사, 척택사, 대돈보, 소상보
- 퇴행방 : 사B=사A보D : 5+4+3-5/+4+2+1= 4+3/4+2+1=7/7  
A(a-), B(a-), D(+), B(+), 경거사, 부류사, 소부보, 연곡보
- 부염증부방 : 보D=사B보E : 5+4+3-4/+5+2+1= 5+3/5+2+1=8/8  
B(b-), D(b-), E(+), D(+), 음곡사, 소해사, 대돈보, 소충보
- 장계염증부방 : 보E=사A보D : 5+4+3-5/+4+2+1=4+3/4+2+1=7/7  
A(a-), E(a-), D(+), E(+), 경거사, 중봉사, 소부보, 행간보
- 정신방 : Sr=사A보D : 5+4+3-5/+4+2+1=4+3/4+2+1=7/7  
S(a-), S(+), 간사사, 노궁보  
(정신부방은 저자의 처방조합에 따른 것이다.)

표 3. 최강 장기가 병근인 체질의 처방검토

장기의 힘의 세기	강한 장기	중심장기	약한 장기
오 장	폐(A)	신(B)	간(E)
五行간 힘의 세기	5	4	3
8체질 臟器간 힘의 세기	5	4 +3	←3
체질의 적률균형	5	4 3	0
기본:사폐(A)=사신(B)보간(E)		-4	+5
퇴행:사신(B)=사폐(A)보심(D)	-5		+4
부염:보심(D)=사신(B)보간(E)		-4	+5
장염:보간(E)=사폐(A)보심(D)	-5		+4
정신:심포(Sr)=사폐(A)보심(D)	-5		+4

(2) 최약 장기가 병근인 체질의 단위처방: A> B> C > D> E  
5 4 3/ 2 1

금양체질, 토양체질, 목음체질, 수음체질

예) 금양체질의 처방<sup>30)</sup>

- 기본방 : 보(E)=사(A)보(D) : 5+4+3-4/+5+2+1= 5+3/5+2+1=8/8  
A(a-), E(a-), D(+), E(+), 경거사, 중봉사, 음곡보, 곡천보
- 퇴행방 : 보(D)=사(B)보(E) : 5+4+3-5/+4+2+1= 4+3/4+2+1=7/7  
B(b-), D(b-), E(+), D(+), 태백사, 태계사, 대돈보, 용천보
- 부염증부방 : 사(B)=사(A)보(D) : 5+4+3-4/+5+2+1= 5+3/5+2+1=8/8  
A(a-), B(a-), D(+), B(+), 경거사, 상구사, 음곡보, 음릉천보

- 장계염증부방 : 사(A)=사(B)보(E) : 5+4+3-5/+4+2+1=4+3/4+2+1=7/7  
B(b-), A(b-), E(+), A(+), 태백사, 태연사, 대돈보, 소상보
- 정신방 : Sr=사(B)보(E) : 5+4+3-5/+4+2+1=4+3/4+2+1=7/7  
S(b-), S(+), 대령사, 중충보  
(정신부방은 저자의 처방조합에 따른 것이다.)

표 4. 최약 장기가 병근인 체질의 처방검토

장기의 힘의 세기	강한 장기	중간장기	약한 장기
오 장	폐(A)	비(B)	신(D)
五行간 힘의 세기	5	4	3
8체질 臟器간 힘의 세기	5	4	3 →
체질의 적률균형	5	4	0
기본:보간(E)=사폐(A)보신(D)	-5		+4
퇴행:보신(D)=사비(B)보간(E)	-5		+4
부염:사비(B)=사폐(A)보신(D)		-4	+5
장염:사폐(A)=사비(B)보간(E)	-5		+4
정신:심포(Sr)=사비(B)보간(E)		-4	+5

(3) 일반 단위처방 구성 원리

8체질의 장부 구조식 : A> B> C> D> E 에서 A, B는 강해지려고 하며, D, E는 약해지려는 경향이 있다. a> b> c> d>e 는 오행구조식이다.<sup>31)</sup>

- A의 단위처방 : 사A(As)=사(B)보(E) : B(b-), A(b-), E(+), A(+)
- B의 단위처방 : 사B(Bs)=사(A)보(D) : A(a-), B(a-), D(+), B(+)
- D의 단위처방 : 보D(Dt)=사(B)보(E) : B(b-), D(b-), E(+), D(+)
- E의 단위처방 : 보E(Et)=사(A)보(D) : A(a-), E(a-), D(+), E(+)
- S의 단위처방 : 조정S(Sr)=사(A)보(D) : 사(B)보(E) : S(a-), S(+)

표기된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A(a-)는 A는 장기명이며 a는 A장기의 힘을 오행으로 표시한다. -는 경락의 유주를 거스리는 방향, 즉 逆法을 말하며, +는 경락의 유주와 같은 방향인 隨法을 말한다. S는 심포 또는 삼초를 말하며 s는 瀉한다, 즉 진정시킨다(sedate), t는 補한다, 즉 강화시킨다(tonify), s는 조절한다(regulate)를 의미한다.<sup>32)</sup> 정신부방은 최강 장기가 병근인 경우는 사A보D이며, 최약 장기가 병근인 경우는 사B보E로 일반 처방은 두 개이다.

(4) 정신부방

권은 정신부방은 다섯 臟器의 중간 臟器로서 臟器間의 불균형을 조정한다고 하였고, 간질을 제외한 정신질환과 자율신경이상에 사용한다고 하였다<sup>33)</sup>.

(가) 권의 정신부방

중간 臟器가 心, 小腸일 때는 정신부방으로 心包經, 三焦經의 經穴을 사용하였으며, 바로 옆 두 臟器를 보사하였다. 중간 臟器가 心, 小腸이 아닐 경우에는 정신부방으로 心經과 小腸經의 經혈을 사용하였고, 가장 바깥 두 臟器, 즉 최강 臟器와 최약 臟器를 補瀉하였다.

오장의 구조식 A>B>C>D>E에서 (A. B. C. D. E는 체질을 구성하는 장기이다) 중간 장기 C가 심, 소장일 때는 심포경, 삼초

28) 주석원, 前揭書, 2007, p156

29) 권도원의 8체질처방을 따른 것임.

30) 권도원의 8체질처방에 따른 것임.

31) 주석원, 前揭書, 2007, p156

32) 주석원, 上揭書, 2007, p188

33) 권도원, 前揭論文, 1974, p.614

경의 경혈을 사용하고, 사B보D로 보사하며, C가 심, 소장이 아닐 때는 심경과 소장경의 경혈을 사용하고, 사A보E로 보사하였다.

\* 오행검산법을 권의 정신방에 적용

예) 금양체질

금>토>화>수>목

5, 4>-3, 2, 1

5,4 // -3,2,1= 9//0 : 사B보D로 보사, 9-4//0+4= 5//4

저자의 오행검산법으로 좌우균형이 맞지 않는다.

예) 금음체질

금>수>토>화>목

5, 4+3//2, 1

5, 7//2, 1=12//3 : 사A보E로 보사, 12-5//3+5= 7//8

저자의 오행검산법으로 좌우균형이 맞지 않는다.

(나) 주의 정신부방

주는 심포, 삼초가 중 장부로서 전신의 조율기능을 전담하며 심은 철저히 국소 장기로서 체질의 장부대소의 한 부분만을 구성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모든 체질을 사B보E와 사A보D의 보사법으로 정신부방을 2개씩 만들었으며<sup>34)</sup>, 오행검산법으로 맞는 처방이나 처방선택에 대한 기준은 없었다. 그리고 그는 토양체질의 경우에는 사B보E방법이 가장 좋은 정신 부방으로 생각한다고 했다.<sup>35)</sup>

(다) 저자의 정신부방

저자는 정신부방은 체질장기의 배열에 있는 심장·소장은 힘의 균형을 깰 수 있으므로 체질장기 배열에서 제외된 심포·삼초경의 혈로서 처방을 구성하였고, 다섯 장기중의 중간 장기보다 힘의 중심에(회전축) 따라 처방구성을 달리했다. 심포와 삼초는 간·심·비·폐·신이나 담·소장·위·대장·방광과 같은 장기고유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으며, 오장·오부를 전체적으로 제어하고 조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타 장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타 장부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심포·삼초의 혈을 사용하는 정신부방은 심포·삼초 경락의 혈들로만 구성되어 있다.<sup>36)</sup> 최강 장기가 병근이 되는 금음, 토음, 목양, 수양체질은 두 번째 장기에서 상극의 방향으로 나간다. 최약 장기가 병근이 되는 금양, 토양, 목음, 수음체질은 세 번째 장기에서 상극의 방향으로 진행한다. 최강 장기가 병근이 되는 체질은 2, 3번째 장기가 회전의 축이 되므로 회전축의 옆 장기인 1 번째 장기를 사하고 4번째 장기를 보한다. 최약 장기가 병근이 되는 체질에서는 3,4번째 장기가 회전의 주축이 되므로 회전축의 옆 장기인 2번째 장기를 사하고 5번째 장기를 보한다.

예) 금양체질

금>토>화>수>목

5, 4>-3, 2, 1

5,4// -3,2,1= 9//0 : 사B보E로 보사, 9-4//0+5= 5//5

권은 가운데 장기가 심·소장이면 좌우에 있는 장기, 2번째 장기를 사하고 4번째 장기를 보하며, 심포와 삼초경의 혈을 사용

한다. 가운데 장기가 심·소장이 아니면, 1번째 장기를 사하고, 5 번째 장기는 보한다. 이는 저자의 오행검산법으로 좌우의 힘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주는 심포, 삼초경맥의 혈을 사용하며, 1번째 혈을 사하고 4번째 혈을 보하거나, 2번째 혈을 사하고, 5번째 혈을 보하는 위 2가지의 방법을 다 취하고 있다. 오행검산법으로 두 처방이 맞으나 사용기준은 없었고, 토양체질의 경우는 사B보E의 방법이 가장 좋은 정신부방으로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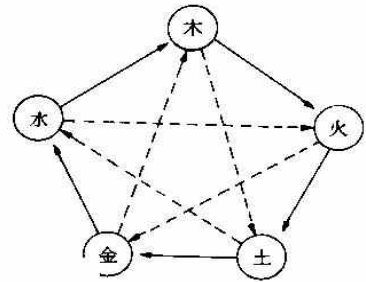
표 5. 정신부방의 비교

체질별 장기배열(오행)	권도원	주석원	저자
A>B>C>D>E			
금양 금>토>화>수>목	C: 심,소장 사B보D	사B보E	사A보D 사B보E
금음 금>수>토>화>목	타 장기 사A보E	사B보E	사A보D 사A보D
토양 토>화>목>금>수	타 장기 사A보E	사B보E	사A보D 사B보E
토음 토>금>화>목>수	C: 심,소장 사B보D	사E보B	사D보A 사D보A
목양 목>수>화>토>금	C: 심,소장 보D사B	보E사B	보D사A 보D사A
목음 목>화>토>수>금	타 장기 보E사A	보E사B	보D사A 보E사B
수양 수>금>목>화>토	타 장기 보E사A	보E사B	보D사A 보D사A
수음 수>목>화>금>토	C: 심,소장 보D사B	보E사B	보D사A 보E사B

사각표시된 오행은 가장 강한 장기거나 가장 약한 장기로 기본방이 된다.

4. 9체질의 존재

권은 9번째 장기구조는 없지만, 혹 9번째 체질맥상이 있을까 하여 8맥상을 찾아낸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찾아보았으나 없었다고 하였다.<sup>37)</sup> 5장, 5부로서 장부기능의 대소에 따라 조합할 수 있는 구조는 20개가 나온다. 20개의 조합은 상극 관계에 있는 두 장부끼리 이루어지고, 오장, 오부로 장부의 대소에 따라 상극으로 조합할 수 있는 20가지 방법을 서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실선은 상생관계, 점선은 상극관계

그림 7. 오행도

사상에서 상극관계는 목금, 금목, 토수, 수토이나 오행에서는 목금, 금목, 목토, 토목, 화수, 수화, 화금, 금화, 목토, 토목의 6개의 새로운 관계가 생긴다.

오행의 틀에서 위와 같이 10개의 상극 조합이 가능하다. 오장과 오부를 오행으로 나누어 상극에 따라 조합하면 20개의 장기조합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화가 들어가는 조합을 제외하면, 목토, 목금, 토목, 토수, 금목, 수토의 배합관계에서 장부를 합하면 12개의 조합이 된다. 동의수세보원의 사상 장기인, 간, 비, 폐,

34) 주석원, 前掲書, 2007, pp.202~205

35) 주석원, 上掲書, 2007, p.204

36) 주석원, 上掲書, 2007, pp.184~185

37) 권도원, 체질을 압시다, 빛과 소금 94년8월호, 1994,

38) 밀줄친 조합은 사상관계이다.

신의 조합으로 된 상극의 구조에서는 목토와 토목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상의 유형에서 8체질형태로 나누어보면 간대폐소는 태음인, 목양, 목음체질이며, 비대신소는, 소양인, 토양, 토음체질이며, 폐대간소는 태양인, 금음, 금양체질이고, 신대비소는 소음인, 수양, 수음체질이 된다. 사상에 포함된 장기 중에 제외된 목토와 토목의 오행의 조합을 장부로 조합으로 바꾸면 4개의 조합이 더 생긴다. 목토양체질(간대비소), 목토음체질(담대위소), 토목양체질(비대간소), 토목음체질(위대담소)의 4가지 조합<sup>39)</sup>이다. 이것은 동의수세보원의 사상의 조합에 나올 수 없는 조합이다. 주는 제 9배열이라 하며, 목토음체질의 임상사례를 한 예를 들어 놓았다.<sup>40)</sup> 그리고 8체질에서 제외된 4가지의 조합에 대한 처방도 소개되어있다<sup>41)</sup>.

## 고찰

동양의학에서는 黃帝內經 靈樞·通天篇<sup>42)</sup>의 五態人과 陰陽二十五人篇<sup>43)</sup>에서 五形人과 二十五形으로 나누고 있으며, 일본의 一貫堂醫學<sup>44)</sup>에서는 瘀血證, 臟毒證, 解毒證 체질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平和質, 氣虛質, 陽虛質, 陰虛質, 痰濕質, 濕熱質, 瘀血質, 氣鬱質, 特稟質 등으로 분류·설명<sup>45)</sup>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조선 말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sup>46)</sup>에서 黃帝內經과 傷寒論을 연원으로 하여 성립된 실천적 체질의학이 등장하였으며 현대에 이르러 권도원<sup>50)</sup>은 인간의 체질유형을 8가지로 나눈 8체질의학을 보고 하였다.

소<sup>52)</sup>는 오행은 5개의 요소에 대응하는 5개의 행상(mode)은 요소 각자의 행동보다는 체계 전체의 동작 상태를 표현해 준다고 하였으며 또한 각 요소간의 작용을 상생상극으로 나타낼 경우, 그 작용의 강도를 수량화하여 정밀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여러 작용의 位相關係 즉 앞서는 정도와 뒤처진 정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여 이 위상개념은 한의학의 진단과 진료에 새롭게 도입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소의 견해와 관련시켜 보면 8체질의학에 있어 각각의 5개 장부의 대

소배열은 단순한 수리적인 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며 사상 의학의 틀에서 오행이 상생상극으로 운행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오행작용의 강도를 수량화 한 것이 8체질치료법이며 8체질침으로 생각된다.

권의 8체질의 장기배열은 수 년 간의 임상을 통하여 도출된 것으로 사료되며, “체질침”<sup>53)</sup>논문에서 처음 발표되었으나, 김<sup>54)</sup> 등의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에서 목양, 수양체질은 2~3번째 장기가, 목음, 수음체질은 3~4번째의 장기가 순서가 변경되어 발표된 후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으며, 그 원리에 대하여 언급한 바는 없었다. 주는 체질의 장부 대소배열의 조건에 만족하는 배열에 오행을 대입하여 수리적으로 계산하여 20개의 구조식을 만들고, 여기서 양쪽 끝에 목과 금, 그리고 토와 수가 오는 경우만 뽑아 권의 8체질의 장부배열을 유추하였다. 박이 조합한 장기의 배열은 8체질의 장기배열과 4체질은 같고 4체질은 유사했으나 화의 배열(심장과 소장)에서 달랐다. 內氣가 음인 경우와 양인 경우를 나누어 같은 사상계열의 체질은, 예를 들면 태양인은 태양인1형과 태양인2형이, 화의 위치가 동일하며 고정적인 위치로 보였다. 이는 오행의 운행을 사상체질에서 장기의 대소 중 큰 장기를 기준으로 반시계방향으로 운행했을 때 양의 체질, 즉 금양, 토양, 목양, 수양체질의 장기배열이 이루어지며, 시계방향으로 운행했을 때는 음의 체질 즉, 금음, 토음, 목음, 수음체질의 장기배열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권은 8체질에서 병근은 각 체질의 치료의 대상이 되는 장기이며<sup>55)</sup>, 이로서 각 체질치료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는 기초치료인 기본방이 만들어진다<sup>56)</sup>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본 병근은 사상의 틀에서 오행이 운행 되는 과정에, 상생의 방향으로 진행하다 상극으로 운행하는 위치에 따라 결정되며, 오행운행이 두 번째의 장기에서 상극이 이루어지면 힘의 축이 강한 장기 쪽으로 기울어져 강한 장기가 더욱 강해져서 불균형을 이루므로 최강 장기가 병근이 되고, 오행운행이 세 번째의 장기에서 상극이 이루어지면 힘의 축이 약한 장기 쪽으로 기울어져서 약한 장기가 더욱 약해져서 불균형을 이루므로 최약 장기가 병근이 됨을 알 수 있었다.

정신부방은 권은 심과 소장이 가운데 장기일 때는 심포와 삼초경을 사용하고, 가운데 장기가 심과 소장이 아닐 때는 심과 소장경의 경혈을 사용하였다. 심과 소장을 정신부방으로 사용할 때는 심과 소장경의 혈들이 처방에 중복되게 사용되어 중간 장기의 좌우가 적불균형을 이루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 또한 처방에서는 중간 장기가 심, 소장인 경우에 두 번째 장기를 사하고 네 번째 장기를 보하며, 중간 장기가 심, 소장이 아닌 경우에는 첫 번째 장기를 사하고 다섯 번째 장기를 보하였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처방은 저자의 오행검산법으로 좌우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

39) 목토양체질(간대비소), 목토음체질(담대위소), 토목양체질(비대간소), 토목음체질(위대담소)는 저자가 붙인 이름이다.

40) 주석원, 前掲書, 2007, p256

41) 주석원, 上掲書, 2007, p214-218

42)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通天篇 第七十二,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pp. 305-308.

43) 洪元植, 靈樞·陰陽二十五人篇 第六十四, 앞의 책, pp. 274-281.

44) 조기호 외 4인, 日本 韓方醫學의 體質醫學인 《一貫堂醫學》에 關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9권 1호, 1997, pp. 339-352.

45) 최병일 외 2인, 日本의 類型體質方劑와 四象醫學의 方劑原理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6권 1호, 1994, pp. 131-136.

46) 矢數格 原著, 『漢方一貫堂醫學』, 서울, 醫學研究社, 1983.

47) 王 琦, 9種基本中醫體質類型的分類及其診斷表述依據,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8권 4호, 2005, pp. 1-8.

48) 劉良倚, 中醫體質學說的研究現狀, 江西中醫藥 31권 3호, 2000, pp. 55-58.

49) 이계마, 동의수세보원, 여강출판사, 1992, p. 28.

50) 권도원, 체질침, 국제침구학회지, 동경, 1965, pp. 149-167.

51) 권도원, 체질침 치료에 관한 연구, 명지대논문집 제7집, 1974, p. 608.

52) 소광섭, 오행의 수리물리학적 모형, 서울, 과학과 철학 제4집, 1993, p.38

53) 권도원, 上掲論文, 1965, p.154

54) 김숙희외 4,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제18권2호, 1985, p.158

55) 권도원, 上掲論文, 1965, p.156

56) 권도원, 上掲論文, 1974, pp.613~614

57) 실한 장기는 사할 때 -로 계산되고, 허한 장기는 보할 때 +로 계산된다.



다. 주는 정신부방에 심포, 삼초경의 경혈들을 사용하였으며, 각 체질마다 두 가지의 정신부방이 있었으나, 처방을 선택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주의 정신부방은 저자의 오행검산법을 적용 시 좌우가 균형을 이루었다. 이러한 관점들을 정리하여 보면 정신부방은 체질배열 장기에서 제외된 심포, 삼초경에서 처방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처방구성은 사상의 틀에서 오행의 운행 시에 상생에서 상극으로 가는 회전의 축에 따라 보사의 방법이 두 가지로 정해짐을 알 수 있었고 오행운행의 상극의 축이 두 번째 장기에 있을 때는 두 세 번째 양열 장기인 첫 번째(최강)장기를 사하고 네 번째(두 번째 약한) 장기를 보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오행운행의 상극의 축이 세 번째의 장기에 있을 때는 세 네 번째 양열 장기인 두 번째(두 번째 강한)장기를 사하고 다섯 번째(최약)장기를 보하여 처방을 구성한다고 보여진다. 주가 만든 정신부방의 하나는 저자가 조합한 것과 동일함을 나타내었다.

동의수세보원의 간, 비, 폐, 신의 대소 조합으로 나눈 사상유형도 하나의 가설이다. 木,火,土,金,水의 五象에서는 오장과 오부를 오행상극으로 조합하면 20개의 장부조합이 가능하다. 사상에서 제외된 火의 장기(心)가 든 조합을 빼면 12개의 조합이 된다. 이때는 제9의 조합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사상으로 이루어진 오행 상극의 순환관계가 아니며 사상을 기준으로 분류한 8체질에서도 나올 수 없는 조합이다. 왜냐하면 8체질도 간, 비, 폐, 신의 사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체질침 반복시술 횟수는 5, 4는 음양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오장의 배열에 속한 장기의 위치에 따라 에너지의 값으로서 이해할 수 있었다. 가장 큰 장기나 가장 작은 장기는 보사관계를 검산할 때  $\pm 5^{57}$ 로 계산되고, 그 다음에 오는 강한 장기와 약한 장기는  $\pm 4$ 로 계산되는데 먼저 오는 순서의 위치에 따라 장기가 갖는 에너지 값으로 이해되며, 치료시 반복하는 시술횟수와 관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단위처방의 시술횟수에 있어서 장염방은 5회, 부염방은 4회로 한다. 장염방은 기본방+장계염증부방으로 침시술 시에는 기본방과 장계염증부방을 5:1 횟수로 하는데 장계염증부방은 기본방에서 가장 먼 장기로 에너지 값이 5가 되며 부염방은 기본방+부계염증부방으로 침시술시 기본방과 부계염증부방을 4:2 횟수로 하는데 부계염증부방은 기본방에서 네 번째의 장기로 에너지 값이 4가 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8체질의학은 오행이 인체를 통하여 향상화한 것으로 보여지며, 인간의 유형, 건강, 성품 등을 나타내는 치료 의학으로써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결 론

四象에서 五行이 운행하면서 8체질의 臟腑구조가 형성되는 것과 病根이 만들어지는 근원을 살펴보고, 체질침처방을 오행검산법에 적용하며, 精神副方의 조합 등을 통하여 8체질의 원리를 고찰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8체질의 다섯의 장기대소 배열은 사상에서 오행이 운행하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오행이 사상의 臟器를 기점으로 반시계방향

으로 운행하면 양체질 즉, 금양, 토양, 목양, 수양체질의 장기배열이 형성되고, 시계방향으로 운행하면 음체질 즉, 금음, 토음, 목음, 수음체질의 장기배열이 형성된다. 病根은 사상에서 오행이 운행할 시, 相生에서 相剋으로 나아갈 때 생기는 臟器들의 힘의 불균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최강 장기가 병근이 되는 것은 오행의 운행 시 두 번째(두 번째 강한) 장기에서 상극방향으로 진행할 때이며, 최약 장기가 병근이 되는 것은 오행의 운행 시 세 번째(중간)장기에서 상극으로 진행할 때임을 알 수가 있었다. 정신부방은 8체질의 장부배열을 이루는 心·小腸의 經穴은 부적절하며, 心包·三焦의 經穴을 선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精神副方은 오행운행의 상극의 축이 두·세 번째 장기에 있을 때는 첫 번째(최강) 장기를 瀉하고 네 번째(두 번째 약한) 장기를 補하여 처방을 구성하고, 오행운행의 상극의 축이 세·네 번째의 장기에 있을 때는 두 번째(두 번째 강한) 장기를 瀉하고 다섯 번째(최약) 장기를 補하여 처방을 구성한다. 치료시 반복하는 시술 횟수, 4, 5는 8체질장기의 배열에서 위치에 따라 장기가 갖는 에너지로 이해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원광대학교의 교비지원에 의해서 수행되었습니다.

## 참고문헌

1. 전국한의과대학 생리학교수 편저. 개정판 동의생리학. 집문당출판사, 서울, 2008.
2. 최승훈. 黃帝內經의 體質論. 사상의학회지 10(2):15-28, 1998.
3. 박찬국. 『臟象學』. 成輔社, 서울, 1992.
4. 이제마. 동의수세보원. 서울, 여강출판사, 1992.
5. 주석원. 8체질의학의 원리. 서울, 통나무, 2007.
6. 박용규. 입체음양오행. 서울, 태웅출판사, 2006.
7. 김용욱. 기철학산조. 서울, 통나무, 2000.
8. 노병한. 음양오행사유체계론. 서울, 안암문화사, 2005.
9. 洪元植. 校合編纂. 精校 黃帝內經·靈樞·通天篇 第七十二,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出版部, 1985.
10. 조기호 외 4인. 日本 韓方醫學의 體質醫學인 《一貫堂醫學》에 關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9(1):339-352, 1997.
11. 최병일 외 2인. 日本의 類型體質方劑와 四象醫學의 方劑原理에 對한 考察. 사상의학회지 6(1):131-136, 1994.
12. 矢數格 原著. 『漢方一貫堂醫學』. 서울, 醫學研究社, 1983.
13. 王 琦. 9種基本中醫體質類型的分類及其診斷表述依據. 北京中醫藥大學學報 28(4):1-8, 2005.
14. 劉良倚. 中醫體質學說的研究現狀. 江西中醫藥 31(3):55-58, 2000.
15. 권도원. Constitution- Acupuncture(체질침). 동경, 일본침구치료학회, 국제침구학회지, 1965.
16. 권도원. Study on constitution-acupuncture Therapy(체질침 치료에 관한 연구). 명지대논문집 제7집, 1974.

17. 김숙희 외 3인. 체질의학의 체질분류법에 따른 식품기호도와 영양상태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한국영양학회지 18(2), 1985.
18. 소광섭. 오행의 수리물리학적 모형. 서울, 과학과 철학, 1993.
19. 배문용 외 1인. 사상체질의 감별법과 병리적 특성에 관한 고찰.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7(1), 1998.
20. 이상범 외 3인. 8체질의학에서 목. 토. 금. 수 4체질군의 임상적 특징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6(3), 2005.
21. 정상지 외 2인. 8체질침의 혈위구성에 관한 연구.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2(6), 2008.
22. 권도원. 체질을 압시다. 빛과 소금 94년8월호, 1994.
23. 야후 백과사전. 과학기술편. 출력일 2009. 3. 24.  
<http://kr.dictionary.search.yahoo.com/search/dictionary?subtype=enc&pk=18665500&field=id&p=%EC%B2%B4%EC%A7%88>